

이천 년 전에 들렸던 누가의 복음 이야기

—9장 예시—

김현정*

1. 들어가는 말

고전학자들은 한때 로마 제국 초기,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저자는 청중들이 모인 작은 모임에서 낭독하려고 주로 글을 썼다”고 생각했다.¹⁾ 그 당시의 문학작품들이 눈이 아닌, 귀를 염두에 두고 쓰였다는 것은 *Cambridge History of Classical Literature*에서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 생활은 구술 문화의 특징들을 함유하고 있다. ... 이 역사 시기에 토론되는, 거의 모든 책들은 들려지기 위해 쓰인 것이다. ... 그러므로 시학 작품이든, 예술적인 산문작품이든 그것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문서가 아니라, 대중 또는 개인 연행을 위한 작품임은 결코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²⁾

그리스 모든 도시들뿐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도 법령이나 중요한 공지사항은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읽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아테네에는 ‘도시의 율법학자(γραμματεὺς τῆς πόλεως)’라는 담당자가 있었다. 그의 임무는 도시와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시민들 앞에 읽어주는 것이었

*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장신대학교 강사. jikinji@hanmail.net.

1) Nicklas Holzberg, *Die römische Liebeslegie: Eine Einführung*, 2nd ed.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1), 3.

2) E. J. Kenney, “Books and Readers in the Roman World”, E. J. Kenney,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lassical Literature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12.

다.3) 팔레스틴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약외경에 속하는 ‘아리스테아의 편지(The Epistle of Aristeas)’를 보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모이게 한 후, 프톨레마이오스왕의 편지를 읽어주는 장면이 나온다(42).

복음서가 쓰일 당시, 초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된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한 자료가 없다. 하지만, 2세기 초 순교자 저스틴은 자신의 변증론(Apologia)에서 “소위 태양의 날에, 도시에 사는 자나 도시 밖, 들에 사는 자, 모두 모여, 사도들의 회상담이나, 예언자들의 글들을 가능한 한 들었다”고 말한다(67. 3). 또 유세비우스가 전하는 디오니시우스(Dionysius), 고린도 교회의 감독에 대한 전승 중, 그 교회는 초대 시대부터 자신의 교회에 보낸 클레멘트의 서신을 읽는 관습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교회사, 4. 23. 11). 즉, 그리스도인들은 고대부터 일반인들이 그랬듯이, 초대 교회에서 글을 낭독하는 것으로 문서를 접했던 것이다.

예수를 비롯해, 첫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즉, 복음을 글로 써서 전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이야기를 하여 전하는, 이른바 ‘복음담가(福音談家, gospel-teller)’⁴⁾로서의 역할이 컸다. 바울 역시 제자들을 통해 예수의 말씀들과 이야기를 전달받은 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담가의 역할을 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서신에서 자신이 주께 받은 말씀들을 전하였음을 여러 번 언급한다(고전 7:25; 9:14; 11:23; 14:21). 그리고 그는 그 공동체를 떠난 뒤에는 서신을 써, 자신의 빈자리를 보완하려 노력했다.

교인들이 복음을 전달받은 방법은 이렇게 입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 외, 또 남이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이었음은 바울서신에서도 드러난다. 바울은 서신에서 자신이 공동체에 있을 때 구약을 읽었다고 여러 번 말한다(고후 1:13; 3:14, 15). 또, 자신의 글을 읽으라고 권면한다(골

3) 아테네의 프닉스(Pnyx)는 모든 공식적인 문서들이 시민들 앞에서 낭독되는 장소였고, 거기에서 아테네인들은 에클레시아(Ekklesia)라는 모임을 갖고, 외교정책들을 토론하곤 했다. 참조, Chrys C. Caragounis, *The Development of Greek and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397-399.

4) ‘복음담가’는 필자가 만든 용어이다. 지금까지 복음서의 구전과 설화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예수와 관련된 복음을 전달하는 자를 민속학 용어인 ‘이야기꾼(storyteller)’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나 복음 이야기를 단순히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정확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대상자 정체성과 괴리가 크다.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사람을 ‘이야기꾼’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서 ‘복음담가(gospel-teller)’가 더 적합하다고 본다.

4:16).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27은 바울이 “자기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 주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읽어주라(ἀναγνώσθητε)’는 동사는 ‘읽히게 하라’는 수동태이다. 즉, 자신의 편지가 누군가의 낭독으로 데살로니가 공동체에게 들려지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이 들리는 방식을 전제로 썼음을 알 수 있다. 초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이 문서를 직접 읽지 않았다. 대표 낭독자가 읽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⁵⁾

현재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문헌들과, 또 그 이후 저술된 여러 기독교 문헌들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들려지는 방식으로 접해졌다.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일부의 교부들만 예외였다. 책의 유포 상태나 평민들의 문해율을 고려했을 때 일반인이 직접 집에서 문헌을 읽었을 확률이 매우 낮았다. 그들은 아마 대부분 죽을 때까지 신약을 한 번도 보지도, 읽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저 그 문헌들을 들음으로써 예수를 믿었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는 선언은 신약문서의 전달방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을 읽은 게 아니고, 들었다고 본다면, 현재의 한글번역판은 그들이 듣고 이해했을 언어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개역개정』이든, 『새번역』이든 모두 그리스어 원문이 말하는 대로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글 어법에 맞춰 한국인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가다듬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떤 이가 낭독한다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긴 문장을 한 호흡에 쉬지 않고 끝까지 읽기 힘들다.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낭독하는 이가 읽어주는 대로 들으면서 이해하였다. 낭독자의 호흡만큼 끊어서 듣고, 그래서 그 끊어진 만큼의 구절을 이해하고, 뒷말을 이어서 이해해가며 들었다. 따라서 그리스어 원문이 낭독되었던 현실을 고려해 번역을 해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신약을 어떻게 듣고,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고대의 문서가 가장 보편적으로 전달되었던 방식으로 그리스어 원문을 한글로 번역하되, 일단 누가복음 9장을 표본으로 하고자 한다. 낭독되었을 때 이해했을 방식으로 한글을 번역했을 때, 누가복음서의 두 가지 성격, 즉 입말과 글말의 성격을 다 알

5) Joanna Dewey, *The Oral Ethos of the Early Church: Speaking, Writing, and the Gospel of Mark* (Eugene: Cascade Books, 2013), 21.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담가(Lucan-teller)는 구술문화가 우세했던 시대를 살았으므로, 자신의 글이 읽기가 아닌, 듣기로 전달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복음서를 쓸 때 청중이 들으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그 청중의 특성에 맞췄다. 귀로 들을 때 경청하도록 세심히 설치한 장치들이 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문자적 시각에서 누가복음서의 문학성만을 보는 바람에 놓쳤던 구술적인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입말체와 글말체를 다 보유하고 있음을 알 기회인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2장에서 간단하게 초대 교회의 소통문화가 읽기가 아닌, 듣기였음을 논증할 것이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자가 아니라, 소리로 복음을 접했음을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는 현재 보급되어 있는 대표적 번역판인 『개역개정』과 『새번역』, 가톨릭에서 현재 사용 중인 『성경』 등을 비롯한, 모든 번역판들이 한국인이 눈으로 읽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고안된 책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아울러 그의 특징과 문제점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귀로 듣기 위한 번역본을 쓰고자 할 때 원칙들을 정리할 것이다.

4장에서는 누가복음 9장을 낭독자가 데오빌로 앞에서 읽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번역하였다. 누가는 자신의 작품을 앞머리에 데오빌로에게 바친다고 말하였다. 당시의 관례라면 저자가 헌정하는 이에게 자신의 작품을 읽는 것이 당연했다. 또 데오빌로가 누가가 복음서를 쓸 수 있도록 재정적 후원을 한 자라면,⁶⁾ 더더욱 누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첫 청중일 것이다. 현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교육을 받아 문자 문화에 더 익숙하다. 듣기보다 읽기에 길들여져 있는 세대이다. 그래서 한글 표준 어법으로 읽으려 한다면 술술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9장을 읽으면서 들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된다. 사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말을 하고 살며, 남이 하는 얘기를 듣고 산다. 여전히 강한 구술문화 아래 산다. 보지는 못하고, 그저 귀만을 쫓곳 연 채 들었던, 이천 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파악하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자를 통해 수많은 현대인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움직였던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천 년 전에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던 ‘소리’까지 함께 재현시킨다면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의 힘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본다.

6) Gerald Downing, “Theophilus’s First Reading of Luke-Acts”, C. M. Tuckett, ed., *Luke’s Literary Achievement*, JSNTSS 11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91-100.

2. 초대 교회에 들렸던 ‘소리’

초대 교회에서 신약 문서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달되었을 지에 대한 논의는 켈버(Werner H. Kelber) 이후로 급속히 활발해졌다.⁷⁾ 이것은 사실 고전학에서 오랫동안 “많은 로마인들이 신문을 읽었다”고 생각하고 의심치 않았던, 고대 그리스-로마인들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벗어나면서 시작된 흐름에 속한 것이다.⁸⁾ 물론 지금도 일각에서는 고대인들이 책들을 혼자 많이 읽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파커(Holt N. Parker)는 로마인들이 연행으로, 다시 말하면 듣는 방법으로 문학작품을 많이 접했다고 생각하는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혼자 읽기를 즐겼던 사람들 또한 꽤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주장을 위해 들었던 사람들의 명단은 키케로(Cicero), 카토(Cato), 호레이스(Horace), 세네카(Seneca), 소 플리니(Pliny the Younger), 소 카토(Cato the Younger) 등이다.⁹⁾ 프리젠(Steven J. Friesen)이나¹⁰⁾ 롱즈넥커(Bruce W. Longenecker)가 분류한 그리스-로마 사회의 사회계층표에 따르면, 이들은 겨우 0.04%에 해당되는 로마 제국의 엘리트들이다.¹¹⁾ 파커는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 극소수의 상류계층을 예로 들어 일반인들도 독서를 할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당시 문서들은 거의 다 한마디로 ‘연속 서술(scriptio continua)’ 방식으로 쓰였다. 저자는 단어와 단어 사이, 구절, 문장들 사이에 마침표나 빈 칸 없이 빼곡히 글을 썼다. 글을 잘 읽는 사람이 아니면 읽기가 어려웠다. 또 조용히 눈으로 읽어가는 것만으로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책 구성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 독자가 책을 읽기 위해 선

7) Werner H. Kelber, *The Oral and the Written Gospel: The Hermeneutics of Speaking and Writing in the Synoptic Tradition: Mark, Paul and Q*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8) R. Marichal, *L'écriture et la psychologie des peuples*, XXIIe semaine de synthèse (Paris: A. Colin, 1963), 208; William V. Harris, *Ancient Lite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14에서 재인용.

9) Holt N. Parker, “Books and Reading Latin Poetry”, William A. Johnson and Holt N. Parker, eds., *Ancient Literacies: The Culture of Reading in Greece and Rom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95-198.

10) Steven J. Friesen, “Poverty in Pauline Studies: Beyond the So-called New Consensus”, *JSNT* 26 (2004), 323-361.

11) 롱즈넥커(Bruce W. Longenecker)는 지방 도시의 엘리트 비율이 프리젠(Steven J. Friesen)의 주장하는 바와 동일하다고 말한다. Bruce W. Longenecker, *Remember the Poor: Paul, Poverty and the Greco-Roman World*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 2010), 46-53.

택하는 방법이 소리 내어 읽기였다.¹²⁾ 알파벳을 발음해가면서 그 소리로 단어들을 구분하고, 문맥을 파악해 나가면서 이해해 나갔던 것이다. 주후 1, 2세기의 가장 보편적인 문학접근 방식은 계층을 막론하고 읽기가 아니라, 듣기인 셈이었다.

마가복음의 경우, 특히 학자들 사이에는 형성단계부터 저술이 아닌, 연행(performance)이라고 하는 자들과¹³⁾ 저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로 나누어진다. 후자들 중 책이라는 항목에 집중하여,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책에 대한 선호도가 남달랐다고 강조하는 자들이 있다. 그 중 갬블(Harry Y. Gamble)이 있는데, 그마저도 그 책들의 전달 방식은 독서가 아니라, 낭독이었다고 말한다. 그 당시 일반적인 그리스-로마인들은 글을 배울 기회가 없어, 주로 연회, 공공 포럼, 공중 목욕탕 또는 경기장에서 시나 문학작품들을 접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당시엔 작가가 책을 다 쓰고 나면, 친한 친구나 친지들 앞에서 작품을 읽어주고, 이들의 소감을 듣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래서 이상일(Sang-Il Lee)은 이런 관례가 예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¹⁴⁾

그리스도인들 역시 대부분이 문맹이었을 것이므로, 복음서를 읽을 수 없었을 것이다.¹⁵⁾ 그래서 신약의 초기 대상자들은 독자가 아니라 청중이라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들은 모임 때마다 낭독을 들어 그 내용을 익혔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⁶⁾ 파피아스가 기록된 문서보다 ‘살아 있

12) B. M. W. Knox, "Silent Reading in Antiquity", *GRBS* 9 (1968), 421-435; P. J. Achtemeier, "Omne verbum sonat: The New Testament and the Oral Environment of Late Western Antiquity", *JBL* 109 (1990), 3-27; M. Schlusser, "Reading Silently in Antiquity", *JBL* 111 (1992), 499.

13) 마가복음서를 연행문서라고 보는 대표적인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David Rhoads, "Performance Events in Early Christianity: New Testament Writings in an Oral Context", Annette Weissenrieder and Robert B. Coote, eds., *The Interface of Orality and Writing* (Tübingen: Mohr Siebeck, 2010), 166-193; Joanna Dewey, *The Oral Ethos of the Early Church: Speaking, Writing, and the Gospel of Mark*; Antoinette Clark Wire, *The Case for Mark Composed in Performance*,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Series 3 (Eugene: Cascade Books, 2011); 김현정, "연행(Performance) 현장에 참여한 청중의 시각에서 본 마가복음의 그리스도상과 제자상", 박사학위논문 (서울장신대학교, 2014).

14) Sang-Il Lee, *Jesus and Gospel Traditions in Bilingual Context: A Study in the Interdirectionality of Language* (Berlin; Boston: De Gruyter, 2012), 66-67.

15) 로마 제국, 특히 이탈리아인들만의 식자 수준을 연구한 해리스(William V. Harris)는 10% 이하만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가졌으리라고 평가한다. William V. Harris, *Ancient Literacy*, 259.

16) Harry Y. Gamble, "Literacy, Liturgy, and the Shaping of the New Testament Canon", Charles Horton, ed., *The Earliest Gospels* (London;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32-33.

는 소리'를 더 선호했다는 증언은(유세비우스, 교회사, 3. 39. 15) 기독교 초기에 예수 전승의 전달이 '듣기'를 위주로 진행되었음을 확증한다. 이에 대해 보캄(Richard Bauckham)은 파피아스의 증언이 주후 80년대 복음이 전승되던 상황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¹⁷⁾ 그러므로, 누가복음서를 비롯해, 모든 종류의 복음서들은 듣기를 먼저 염두에 두고 쓰인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윤만은 현재 발견된 기독교 사본들이 많은 것도 구술 전달의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배웠다고 말한다. 고대의 문서들의 주된 목적이 구술적 전달의 보조였기 때문에, 현재의 복음서 안에 구술을 돕게 만든 기억을 인지언어학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1~2세기의 일반인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 매개체는 구두였지, 문서가 아니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교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복음담가(gospel-teller)의 이야기를 들어서였지, 책이 아니었다. 문자 문화가 우세한 현대에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성경이 아니다. 설교나, 간증, 전도를 통해 들은 복음의 소리 때문이다. 그 이후에야 성경을 문자로 읽기 시작한다. 즉, 그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복음의 힘은 듣기에서 나옴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각국의 성서 번역판이 인쇄되어 나오기 전까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듣기로 믿음의 씨앗이 생겼고, 성장했고, 변화되는 삶을 일구었다.

케년(Frederic G. Kenyon)은 주후 4세기가 지나서야 로마의 상류층에서 문자문화가 양성되었다고 말한다. 책을 피지본(vellum) 또는 필사본(codex)으로 발간할 수 있게 되자, 그리스도교가 성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¹⁹⁾ 양피지로 만든 책이 내구성이나 편의성에 있어서 파피루스보다 월등 뛰어났지만 4세기가 되어서야 파피루스책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²⁰⁾ 그들에겐 구연이든, 낭독이든 듣는 것이 일상적인 지식습득 방법이었다. 복음담가를 비롯해서, 청중들 모두는 어떻게 해야 이야기가 잘 들리고, 이해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이며, 그러한 구술/청각적 기술들이 신약문서에 녹아들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초

17) Richard Bauckham, *Jesus and the Eyewitnesses: The Gospels as Eyewitness Testimony* (Grand Rapids: W. B. Eerdmans, 2006), 12-38.

18) 박윤만, 『신약성경 언어의 의사소통 기술』 (서울: 그리심, 2013).

19) Frederic G. Kenyon, *Books and Readers in Ancient Greece and Rome* (Oxford: Clarendon Press, 1951), 87-120.

20) Bruce M. Metzger and Bart D. Ehrma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4th ed.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8.

기부터 팔레스틴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로마인들을 예수에게로 끌어들이었던, 그 들렸던 이야기를 재현해 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3. 읽기에서, 다시 듣기로

3.1. 한국인의 읽기를 위한 한글판

1911년에 성경이 한글로 완역된 『성경전서』가 출간된 이래, 여러 번 변화한 한글맞춤법에 맞추어서 나온 것이 『개역개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대와 언어의 변화를 존중해 개정하였지만, 교회 안의 정서를 고려해 옛 문체를 그대로 유지한 점이 특징이다. 물론 이전의 성경이 문어체 위주여서 구어체로 바꾸었고, 난해한 한자어를 현대에 사용하는 단어로 대거 교체하였다.²¹⁾ 그러나 여전히 『개역개정』이 예전의 번역 틀을 완전히 깬 것이 아니어서, 이를 벗어나고자 만든 것이 『표준』이다. 이것을 수정해서 새로 나온 것이 『새번역』이다. 이것은 히브리 맛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원문을 토대로 새롭게 번역하였고, 『개역개정』보다 더 쉬운 현대어를 대거 채택했다. 물론 ‘성경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유행어나 저속한 표현은 쓰지 않는’ 방침 하에 쓰였다. 『새번역』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 전통적인 용어들을 대폭 수용하고, 번역시 원문의 틀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뜻을 전달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²²⁾ 일반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실정이다.

두 번역판 외, 이미 그 전에 가톨릭과 공동으로 번역하여 나온 『공동』과 특정 목적을 가지고 나온 『바른성경』, 『현대인의 성경』 등 여러 성경 번역판들이 있다. 또 가톨릭에서는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200주년 신약성서』를 발간하였고, 미사 시 낭독성경으로 현재 『성경』을 냈다.²³⁾ 다 나름 기존의 번역판이 가지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왔으나, 모두 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바로 ‘한국인’이라는 ‘독자’의 관점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인이 눈으로 ‘읽기’

21) 민영진, 『개역개정판 이렇게 달라졌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 7-8.

22)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머리말 중.

23) 『신약성서』는 1991년에 출판되었으며, 『성경』은 2005년에 출판되었다.

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바르게 이해되도록 했다. 번역판의 근거 문서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문이든, 영어판이든 모두 다 한 문장을 통으로 읽고, 그것을 한글로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또 표준 문법에 맞추어 번역을 했다. 성경을 낭독하여 들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였으나, 출판된 원래의 목적은 눈으로 읽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원래 그리스어나 영어 문장을 읽는 방식은 쓰인 순서대로 처음부터 읽어나가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관계 대명사나 접속사가 있다 해도, 그 뒤에 있는 절을 다시 앞 문장과 연결해서 재독, 해석을 시도하지 않는다. 눈으로 읽고 내려가면서 앞 문장과 이어 해석하고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번역자들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한국인들의 어법에 맞추어 재조정했고, 그래서 한글 성경판을 소리 내어 읽어도 한국인이자면 자연스럽게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원천본문(source text)인 그리스어 본문의 문장 구조와 전혀 다르게 번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 받아온 현대인으로서 이러한 번역판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이천 년 전 성서, 특히 본고의 관심대상인 누가가 복음서를 쓸 당시에 읽기가 일반적인 독서방식이 아니었다. ‘듣기’였다. 누군가가 읽어주는 예수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루터의 독일어 성서판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가복음서를 듣는 것만으로 이해했고, 들리는 이야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었다. 다시 말하면, 특히 누가가 목표로 삼았던 최초의 청중은 누가가 들려주는 대로 들으면서, 예수의 탄생부터 공생애 활동,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선포활동들을 인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복음으로 들어갔기에 정경으로서의 능력이 생긴 것이다. 청중들은 어쩌면 생애 한 번도 성경본문을 읽어보지 못한 채, 듣기만 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전도했을 것이다.

그것을 누가가 간과했을 리 없다. 글말보다 입말이 우세한 소통문화는 누가 자신뿐 아니라, 청중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중은 시든, 이야기든 모든 문학작품들을 들어서 가치와 진실성을 판단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누가가 쓴 복음서는 청중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복음의 진정성을 깨닫고, 수용하고, 변화하도록 계산되어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

누가복음서의 문학성에 가장 주목했던 캐드베리(Henry J. Cadbury)는 문학적 특징들을 분석하면서 4가지를 꼽았는데, 그것은 바로 반복성과 변이성, 그리고 분포성과 집중성이다.²⁴⁾ 그런데 후자 2가지는 실제로 전자들을 다르게 설명한 것이다. 같은 단어들, 동일한 소재를 토대로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집중적인 분포현상을 보인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가 독특한 점이라고 꼽은 것이 바로 같은 접두사를 넣은 합성동사들의 활용이다. 즉, 누가가 ἀντί, διά, κατά와 같은 전치사가 들어간 여러 합성동사들을 한 문장에서 사용하는 특징을 지녔다고 한 것이다.²⁵⁾ 그런데 한 문장에서 동일한 전치사로 시작되는 단어들, 계속 나타나면, 훨씬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의미면에서 주의하고 듣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들리는 단어가 더 귀에 편하게 들어오게 되고 신경 쓰인다. 캐드베리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은 누가가 치밀하게 계산하여 이런 문학적 성과라기보다는 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난 저자의 생각일거라고 추정한다. 저자가 글을 쓰는 가운데 경험으로 느끼며 터득한 특징들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그는 이러한 특징들이 비단 누가복음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한복음서와 마태복음서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발견된다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지적했다는 것이다. 캐드베리는 이러한 문학적 경향성을 발견해내고 정리하는 것만이 당대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다.²⁶⁾ 때가 되면 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났는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누가의 특징들은 모두 다 입말에 내재하는 현상들이다.²⁷⁾ 이야기꾼이라면, 나아가 초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복음담가라면 구술연행하면서 자연스레 생기는 현상이 반복성과 변이성이다.²⁸⁾ 그리고 앞에서 캐드베리가 분포성과 집중성으로 든 사례들은 사

24) Henry J. Cadbury, "Four Features of Lucan Style", Leander E. Keck and J. Louis Martyn, eds., *Studies in Luke-Act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87-102.

25) *Ibid.*, 98-99.

26) *Ibid.*, 100-101.

27) 캐드베리(Henry J. Cadbury)는 누가복음서를 구술문화와 연계시켜 보진 않았지만, 그 언어는 상당히 입말이라 평가한다. 타 신약문서보다는 수준이 높지만, 누가가 그 당시 고전 그리스인들(Atticists)의 책들을 읽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Henry J. Cadbury, *The Making of Luke-Acts* (London: Hendrickson, 1999), 115.

28) Alan Dundes, *Holy Writ as Oral Lit: The Bible as Folklore* (Lanham; Boulder; New York;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9); Albert B. Lord, "The Gospels as Oral Traditional Literature", William O. Walker, ed., *Relationships among the Gospel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San Antonio: Trinity University Press, 1978), 33-90; P. J.

실 소리로 들었을 때 더 확연히 깨닫게 되는 것들이다. 동일한 전치사로 만들어진 여러 합성동사들이 한 문장에 계속 등장할 때, 그것은 눈에 먼저 띄기보다 소리로 들었을 때 더 인지되기 쉽기 때문이다. 청중은 꼭 같은 단어나 구절이 아니라, 음소나 음절만 반복해서 나와도 그 반복성에 주목하고, 기억을 더 잘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²⁹⁾ 언어가 읽혀지는 세상이 아니라, 들려지는 세상에 산 누가는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글을 썼을 것이다. 저자가 구연하지 않고, 직접 저술해서 누가복음서를 썼다 할지라도, 자신의 글을 들을 청중을 위해 청각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듣기를 고려한 번역판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2. 듣기를 위한 번역판의 원칙과 특징

3.2.1. 한 숨 호흡법에 맞추어 번역한다.

어떤 사람도 소리 내어 읽으면, 한 문장을 한 숨에 끝낼 수 없다. 특히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와 구절들이 ‘연속 서술(scriptio continua)’ 방식으로 쓰였다면 더 힘들다. 청중들 앞에서 늘 읽기를 맡았던 이라 할지라도, 처음 보는 내용 앞에서 길게 연속하여 읽기란 더 어렵다. 또 누가복음서 읽기는 혼자 읽어 내려가는 낭독이 아니다. 낭독자의 읽는 소리만으로 본문의 내용을 오롯이 이해해야 하는 청중을 앞에 두고 읽는 것이다. 이는 낭독자가 문장을 되도록 크게, 그리고 또렷이 읽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낭독자의 한 숨은 눈으로 읽어내려가는 독자의 한 숨보다 짧다. 들리는 것을 고려한 본문으로 재구성하려면, 한 숨에 읽을 수 있는 구절로 나뉘어 번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박형대는 사도행전 그리스어 원문을 의미 단위로 끊어, 줄 단위로 번역하여 내놓았다.³⁰⁾ 이것은 필자의 ‘한 숨 호흡법’ 원칙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가 판단한 의미 단위가 긴 경우

Achtemeier, “Omne verbum sonat: The New Testament and the Oral Environment of Late Western Antiquity”, 23-24; James D. G. Dunn, *The Oral Gospel Tradition*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 2013), 특히 49-74.

29) Margaret E. Lee, “Sound and Structure in the Gospel of Matthew”, Kelly R. Iverson, ed., *From Text to Performance: Narrative and Performance Criticisms in Dialogue and Debate* (Eugene: Cascade Books, 2014), 100-101.

30) 박형대, 『사도행전 원문강독: 원문, 번역』 (서울: 그리심, 2015).

는 거의 한 문장 길이에 해당되는 것도 있어, 이천 년 전에 누가의 글을 들었던 청중의 느낌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3.2.2. 문장을 듣는 대로 번역해 내려간다.

성서의 그리스어 원문은 한글과 어법이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동사 안에 인칭이 들어가 있고, 고전 그리스 문학작품과 다르게 동사가 문장 앞머리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글 번역본들은 한글표준어법에 맞추어 다시 문장 구조를 재배치했다. 그래서 기존의 번역본들을 읽을 때 거리낌 없이 술술 읽어내려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원문이 들리는 대로 번역을 하면 한글로 듣기에 뭔가 꺾끄러운 점들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누가복음서는 구술문화가 가장 융성할 때 형성된 글로, 입말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게다가 내용의 반 이상이 예수의 사건, 즉 예수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들과 가르침들을 담고 있다. 상황을 묘사하는 서술문장보다는 실제로 일어난 것인 양 재현해서 들려주는 담론문장이다. 그래서 자연히 문장 구조 역시 상당 부분 구어체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대화인 경우, 구어체는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화자 쌍방이 서로 말의 대상과 주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므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점만을 끄집어내어 이야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³¹⁾ 글말 어법으로 보면 틀린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화를 실제로 나누는 사람들은 그 대화가 표준 어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을뿐더러,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것이 구어의 약점이자, 특징이기도 하다. 복음서에도 이런 경향이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글말체로 전환하면서 그러한 특징들이 가려졌다. 그러나 필자가 원천본문을 읽기대로 최대한 옮겼을 때, 원문

31) 한국 민속학자가 조사자로서 참여한 상황에서도 이야기꾼이 청중 앞에서 이야기판을 벌이면 이런 현상은 늘 일어난다.

“전라도 어느 곳에서 은자 거짓말 대회가 탁 붙었는데, 그게 인자 경상도 사람이 척 전라도 대회 장소로 척 인자 혈레벌떡 가니까, 어느 한 능선을 이레 탁 넘어야 되는데, 팔부 능선 쯤 올라가니까 거기에 팔대장성 걸은 사람이 한 사람이 혈레벌떡 내려오는 기라.

‘보소. 여기 다듬잇돌 하나 날라 가는 것 안 봤소?’

그래 힐끔 차려보더니,

‘올라가보소 요 산넘에 가이까네 거무줄에 걸 리가 있대요.’

다듬잇돌이 거무줄에 걸려 있을 리가 있다. 그 거짓말 대회인 기라. 이 거짓말 대회라.”

이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꾼은 인칭을 다 생략하고 있고, 주어도 필요 없으면 말하지 않는다. 김구한, “이야기판의 형성과 이야기 연행의 특징”, 「민속연구」 24 (2012), 23.

이 갖고 있던 입말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났고, 이해면에서도 그리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눈으로 읽기에 약간 어수룩하게 느껴지나, 직접 귀로 들을 때 오히려 생동감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3.1.1. 원천본문(source text)과 청중의 역동적 동등성을 지향한다.

어떤 언어든 번역을 시도할 때는 대상, 즉 청중의 언어와 조화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원천본문(source text)인 그리스어 성경을 청중인, 한국인의 어법에 맞게 옮기지 않으면, 아무리 본문의 문법적인 특성이나 표현의 특성을 보존했다 할지라도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³²⁾ 그래서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법 안에서 표현하려 했다.

첫째, 우리나라는 그리스-로마 사회와 달리 존대법이 있는 언어문화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성경판들은 되도록 그것을 반영하려 애써왔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를 대명사로 써야 할 경우, 단순히 원문처럼 ‘그’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정서상 껄끄럽다는 논란이 있자, ‘주’나 ‘예수’로 전환시켜 버리거나 생략시켰다.³³⁾

그러나 본 번역판에서는³⁴⁾ 원문에 나오지 않는데도 ‘그’나 ‘예수’를 사용하는 것은 원문을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애초 저자가 살리려 했던 문맥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어, 최대한 대명사나 고유명사 사용을 자제하였다. 대신 *αὐτός*가 나올 때는 저자의 강조 의도를 살리려 노력했다.³⁵⁾ 누가복음서 같은 경우, *αὐτός*를 *καί*와 함께 쓴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신약에 *αὐτός*만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καί αὐτός*는 누가복음서에만 25번 나온다. 마태복음서에는 2번, 마가복음서에는 6번, 요한복음서에는 2번 밖에 등장하지 않았다. 사도행전의 5번을 포함하면 신약에 *καί αὐτός*가 총 30번이 나오는 셈이다. 그래서 플럼머(A. Plummer)는 히브리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도 했다.³⁶⁾

32) 전무용, “성서 번역자가 알아야 할 한국어 문법: 체언과 용언의 표현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5 (2004), 59.

33) 『새번역』에서는 ‘주’로 돌렸고, 『개역』에서는 생략했다. 전무용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3인칭 주어는 생략하는 것이 한국어의 특성에 잘 맞다고 평가한다. 참고, *ibid.*, 64-65.

34) 원천본문으로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8판을 삼았다.

35) 마운스(William D. Mounce)는 *αὐτός*가 강조용도도 있지만, 3인칭 대명사 역할로도 사용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조광호는 동사에 주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칭 대명사 주격을 쓴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농후하다고 말한다. 또 문장에서 *αὐτός*를 굳이 쓰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 윌리엄 D. 마운스, 『마운스 헬라어 문법』, 조명훈, 김명일, 이충재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7), 180-185; 조광호, 『성서헬라어』 (서울: 소망사, 2005), 55.

36) A. Plummer, *Gospel According to St. Luke*, ICC (Edinburgh: T. & T. Clark, 1922), lxi; Henry J. Cadbury, *The Making of Luke-Acts*, 213-217.

그런데 모든 한글본들에서 αὐτός나 καὶ αὐτός의 존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누가가 행동 주체자인 ‘그’를 강조하기 위해 αὐτός나 καὶ αὐτός를 써도, 이미 대명사가 없는 문장에서도 계속 ‘그’나 ‘예수’를 썼기 때문에 더 이상 αὐτός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9:51 하반절에, “Ἐγένετο δὲ ἐν τῷ συμπληροῦσθαι τὰς ἡμέρας τῆς ἀναλήμψεως αὐτοῦ καὶ αὐτὸς τὸ πρόσωπον ἐστήρισεν τοῦ πορεύεσθαι εἰς Ἱερουσαλήμ.”가 나오는데, 『개역개정』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로 적어, καὶ αὐτός가 아예 사라졌다. 『새번역』에서는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로 적어, 이 역시 51절 상반절에 주격이 없는 문장과 καὶ αὐτός가 있는 문장의 차이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형편이다. 현재 가톨릭에서 예배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³⁷⁾에는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로 해, 상반절과의 차이를 드러내기는 했으나, αὐτός가 제대로 강조되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이 구절을 “일이 있었습시다, 꼭 왔을 때, 그분이 승천하는 시기가요, 그래서 그분은 친히 얼굴을 고정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요”로 살리는 것이 낫다고 본다.

둘째로, 예수를 가리키기 위해 3인칭 대명사가 나오거나 써야 할 경우, ‘그분’이라는 격식체 대명사로 전환시켰다. 한국 교회에서 거의 ‘예수’라는 이름을 찬양 외에 그냥 부르지 않는다. 일반 사회에서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님’을 붙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의존명사로서 상대방을 높여 부르기 위해 ‘님’을 붙였지만,³⁸⁾ 지금은 존중의 의미를 담아 일반인들에게 보편화시켜 사용한다. 예수를 존중조차 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문화 흐름을 거스른다고 판단되어, 본 번역판에서는 ‘예수님’으로 하였다. 가톨릭에서는 『200주년 신약성서』뿐 아니라, 『성경』도 ‘예수님’이라고 사용하고 있다.³⁹⁾

박덕유는 현재 사회에서 쓰는 높임말들을 문장 종결어미로 여러 단계 등급을 매겼다.⁴⁰⁾ 이른바 청자에 대한 화자의 대우 등급을 가늠할 수

37) 2005년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발간함.

38) 국립국어원, “님”, 『표준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7. 4. 6.).

39) 박형대의 『사도행전 원문강독』도 예수에 ‘님’을 붙이고 있다.

40) 화자가 청자와 대화할 때, 문장의 종결어미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높임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여 매긴 체계가 ‘화계(scale of politeness)’이다. 성기철, 『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교육』 (서울: 글누림, 2007), 123-131.

있는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국어높임법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는데,⁴¹⁾ 격식체에는 4개의 화계, ‘하십시오-하오-하계-해라’체가 있다. 비격식체는 2개의 화계, ‘해요-해’체이다. 그는 이러한 기본구분법으로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와 다른 등장인물들 사이의 대화법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는데,⁴²⁾ 대략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원문을 최대한 살리되, 현재의 독자 공동체를 고려해 격식체 화계를 적용한다. 예수님과 관련된 화계는 격식체를 사용하고, 예수님 외의 화계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함께 사용한다. 그래서 박덕유는 예수와 제자들 사이의 대화도 엄격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수 대 제자들 사이를 ‘해라 ↔ 하십시오’로 권유한다. 대신 예수가 병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는 이들이 병마로 힘든 시기를 보내었을 것이므로, 격식체인 ‘하오 ↔ 하십시오’나 ‘해요 ↔ 하십시오’가 나올 것이라고 보았다.⁴³⁾

예수의 어투를 격식체로 적을 것인지, 비격식체로 적을 것인지, 또 높임말로 할 것인지, 낮춤말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무용은 1971년에 『공동번역 신약』의 초판 번역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했다고 증언한다. 『공동』에서 예수가 사람들에게 격식체를 사용하자(예.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마시오. 루가 14:7, 8),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인간에게 당연히 반말을 써야지 높임말을 하면, 권위가 없게 느껴진다고 하며 반대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인간 예수’로 각인시키려는 인본주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며 의심까지 했다는 것이다.⁴⁴⁾ 이러한 반발은 1980년대 초기 사회가 여전히 수직적이고 봉건주의적 사고가 강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2017년을 살고 있는 현재는 그로부터 이미 50년이 지났고, 또 ‘열정페이’, ‘갑질’ 등의 신조어에서 볼 수 있듯이, 수직적 억압 구조에 대해 반발이 상당히 표출되는 시점이다. SNS를 통해 수평정신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 이제는 반말하는 예수의 어투에 부당함을 느끼는

41) 우리말의 존비법 체계를 통상 ‘존대말과 반말’, 또는 ‘높임말과 낮춤말’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무용은 이러한 높임과 낮춤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전근대적인 개념이라고 비판한다. 오히려 예의와 격식을 갖춘 형식인지 아닌지로 구분하는 수평적인 개념으로 언어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무용, “성서 번역자가 알아야 할 한국어 문법”, 76.

42)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성경원문연구』 34 (2014), 88-89.

43) Ibid., 91-92.

44) 전무용, “성서 번역자가 알아야 할 한국어 문법”, 76-77.

소리들이 있다.⁴⁵⁾ 일반 회사에서는 계급을 내포한 호칭조차도 수평적 의견 교환에 장애를 주므로 가명이나 계급을 지운 호칭을 만드는 추세이다. 예수가 어른에게 존댓말을 하는 한반도에 태어났더라면, 분명히 연장자나 처음 만나는 이에게 존댓말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셋째로, 본고는 예수가 제자와 대화를 나누든, 일반 무리나 병자들과 대화를 나누든 대화 상대자와의 친밀도나 상황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혼용해 쓰되, 되도록 격식체로 적었다. 그리고 격식체에 있어서도, 가장 존중해주는 말, ‘하십시오’를 쓰고, ‘하오-하게-해라’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았다. 비격식체에 있어서도, ‘해요’를 채택하고, ‘해’는 쓰지 않았다.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투로 들리기 때문이다.

두 세대 전만 해도 한국 사회는 수직적 문화 구조가 강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으므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나 어투에서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 불경스럽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일방적으로 높이는 호칭 사용이 결코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의 양육이 필요한 시대이므로, 예수의 대화는 격식체든, 비격식체든 상대방을 존중하는 ‘하십시오’ 또는 ‘해요’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상황을 서술하는 화자의 어법이 ‘-다’로 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대부분 ‘-입니다/ -습니다’ 또는 ‘-요’로 고쳤다.⁴⁶⁾ 통상 이야기꾼은 이야기판에서 반말을 사용한다.⁴⁷⁾ 이는 이야기꾼이 판을 장악하기 위해선 입담이나 입심도 필요하지만, 말투로 자신이 높은 위치를 선점해 청중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신뢰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누가복음서는 데오빌로라는 교회의 중심 인물에게 복음을 증거 하는 목적을 지닌 글이다. 그의 정체성이 현실 인물인지, 상징적 인물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나,⁴⁸⁾ 누가가 그의 이름을 적은

45) 연장자에게 반말하는 예수에 대해 번역의 시정을 요구하는 기사이다. 구교형, “연장자에게 반말한 예수?”,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2> (2017. 4. 5.)

46) 1967년에 나온 『새번역 신약전서』가 문장 종결형을 “-입니다/-습니다” 체로 번역하였으나, 1993년의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은 다시 “-다”로 바꾸었다.

47) 각주 31번, 이야기꾼의 어투를 참고하라.

48)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AB 28 (Garden City: Doubleday, 1981), 57-59; Loveday Alexander, *The Preface to Luke's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187-205; “What if Luke Had Never Met Theophilus?”, *Biblical*

것만으로도 결코 알볼 인물이 아님은 확실하다. 누가 담가가 예수 이야기를 정중하고 진지하게 전달하려 했다면, 청중을 존중하는 화법이 맞을 것이다. 그가 낭독자로 예수 이야기를 들려줬다면, 분명 입말이지만 격식을 갖춘 말로 전했다는 것이다.

3.2.3. 누가의 어투를 가급적 살리려 애쓴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단어 사용이나, 문장 표현에 있어 문학 수준이 뛰어나다고 평가 받는다.⁴⁹⁾ 복음서에 사용한 단어만 해도 2,055개이며, ‘일회 등장 단어(hapax legomenon)’만 해도 220개가 된다. 사도 행전의 326개를 포함하면, 무려 546개이다.⁵⁰⁾ 마태가 89개, 마가는 61개, 요한이 68개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이다. 물론 그가 사용한 단어들의 90%는 칠십인역에 있는 것이어서 히브리식 어투가 많이 엿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⁵¹⁾

그러나 일찍이 다이스만(A. Deissmann)은 신약의 언어들에 기존의 기독교가 천착해왔던 철학적, 종교적 배경 외, 의외로 일반적인 삶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비록 신약문서보다 후대 문서들이긴 하지만, 이집트와 소아시아에서 발견된 여러 파피루스와 비문들을 토대로, 그는 신약의 저자들이 칠십인역뿐 아니라, 평상시에 쓰던 용어들을 썼다고 했다. 누가복음서 6:24의 ἀπέχω는, 예수가 부유한 자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고 저주선언 할 때 사용한 동사이다. 누가는 이 ‘받는다’는 동사를 하나님 나라라는 종말론적 통치와의 관

Interpretation 8:1-2 (2000), 164-167; John Nolland, *Luke 1-9:20*, WBC 35A (Dallas: Word Books, 1989), xxxii; 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 1997), 44-45.

49) 제롬은 “모든 복음서 기자들 중 누가가 가장 그리스어에 뛰어난 작가이다”라고 극찬한다. *Ep. Ad Damasum* 20.4.4; *CSEL* 54, 108;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2; Henry. J. Cadbury, *The Style and Literary Method of Luk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0); Mikeal C. Parsons, *Luke: Storytellers, Interpreter, Evangelist*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7).

50) 위의 개수는 로고스 5 포럼에서 NTG²⁸을 기준으로 발표한 것이다. <https://community.logos.com/forums/t/66705.aspx>. 과거, 모르겐탈러(R. Morgenthaler)는 971개가 된다고 발표하였다. R. Morgenthaler, *Statistik des neutestamentlichen Wortschatzes* (Frankfurt am Main; Zürich: Gotthelf, 1958), 27;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109에서 재인용; 플럼머(A. Plummer)는 누가에서 일회 등장 단어가 312개 되며, 두 책을 합쳐, 사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750개 또는 851개가 된다고 한 바 있다. A. Plummer, *Gospel According to St. Luke*, lii.

51)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113-125.

계선상에서 썼지만, 다이스만은 이것이 영수증 파피루스에 자주 쓰였다고 밝혔다.⁵²⁾ 또 누가복음서 15:12의 τὸ ἐπιβάλλον μέρος도 부모의 유산을 칭하는 법적 문서 파피루스에 나오는 단어라고 했다.⁵³⁾

누가의 언어와 문체를 연구한 캐드베리(Henry J. Cadbury)는, 그것과 더불어, ‘모두’, ‘다’, ‘오늘’, ‘바로 그가’와 같은 단어를 누가가 유독 많이 강조해서 사용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그리스 화법과 비교해 특이하다고 할만한 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⁵⁴⁾ 대신 그는 당시 옥시린쿠스에서 발견된 문서에 나오는 단어들이 누가의 ‘일회 등장 단어’인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심했다. 사도행전 25:7에서 유대인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에 대해 하는 ‘고발(αἰτιώματα)’이란 단어가 옥시린쿠스 문서에서는 당나귀를 모는 주인이 잘못해서 두 마리의 돼지를 죽이자 무식한 사람이 ‘불평(αἰτιώματα)’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었다.⁵⁵⁾

누가가 많이 썼던 단어들은 칠십인역에도 나오지만, 주후 1~2세기 문서, 일반 평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담은 옥시린쿠스에도 나온다.⁵⁶⁾ 일반인이라면 부엌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던 단어들을 누가는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낌 없이 사용했던 것이다. 물론 누가는 마가나 요한보다는 글말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을 보인다.⁵⁷⁾ 단지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언어유희를 해가면서 구사하였을 뿐이었다. 예수가 갈릴리 시골을 돌면서 어부와 농부, 아녀자들에게 씨, 보물, 등불과 같은 일상 소재들로 이야기했듯, 누가 답가도 대중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다. 그런데 누가의 이야기가 성경이 되면서 그 언어가 거룩성을 띠어야 신성모독을 피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혔다. 예수의 언어를 상향함으로써 오히려 예수의 정신과 언어마저도 모독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

52) 다이스만(G. A. Deissmann)은 그래서, 마 6:2, 5, 16에서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는 말은 더 신랄하고도 야유하듯이 ‘저희는 자기 상의 영수증에 서명했다’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한다. G. A. Deissmann, *Bible Studies* (Peabody: Hendrickson, 1988), 229.

53) *Ibid.*, 230.

54) 예를 들어, 이름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누가는 여격으로(ὀνόματι) 많이 쓰는데, 이 또한 파피루스에서도 발견된다고 말한다. Henry J. Cadbury, *The Making of Luke-Acts*, 213-217.

55) *Ibid.*, 215.

56) J. H. Moulton, *A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vol. 4, 3rd ed. (Edinburgh: T. & T. Clark, 1908), 3-5.

57) Erica A. Mathieson, “The Language of the Gospels”, Mark Harding and Alanna Nobbs, eds., *The Content and the Setting of the Gospel Tradition*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2010), 65.

다.⁵⁸⁾ 누가 문서는 입담 좋은 담가가 풍부한 이야기 재료들을 잘 엮은 설화이다. 그 안에는 예수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구어체로 녹아들어 있다. 입말의 성격이 농후한데 성경번역본이 경건하고 거룩한 글말체로 바뀌면서, 생동감이 사라졌다.

누가복음서에서 들을 수 있는 독특한 단어들 중 하나가 ἐγένετο로 시작되는 문장일 것이다. 특히 공관복음서에서는 καὶ ἐγένετο로 시작되는 문장을 들을 수 있는 반면,⁵⁹⁾ 요한복음서에서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히브리식 어법으로, 칠십인역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 누가복음서는 특히 καὶ ἐγένετο 문장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연장선상식 어법인, καὶ ἐγένετο ὡς도 있다. 이것은 오로지 누가복음서에만 나타나는데(1:23, 41; 2:15; 19:29), 이 역시 칠십인역에서 무려 61구절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καὶ ἐγένετο 문장을 한글본으로 번역했을 때, 이 구절이 있든, 없든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 사이에 차이가 없다. 『개역개정』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서 13:53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καὶ ἐγένετο) 그 곳을 떠나서

누가복음서 7:11 그 후에(καὶ ἐγένετο ἐν τῷ ἑξῆς)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요한복음서 2:12 그 후에(Μετὰ τοῦτο)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위에서 보다시피,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서의 καὶ ἐγένετο와 요한복음서의 μετὰ τοῦτο 문구를 모두 다 ‘그 후에’라고 번역해, καὶ ἐγένετο 문구뿐 아니라, μετὰ τοῦτο까지도 원문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요한복음서에서 특히 μετὰ τοῦτο는 요한복음서에서만 발견되는 표현이다(2:12; 11:7, 11; 19:28; 참조, 계 7:1). 이처럼 각 복음서 저자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어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한글본들은 다 동일하게 번역하여, 각 문서들의 독특한 문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누가는 말하거나 대답할 때 사용하는 동사의 대상을 적을 때, 일반적으로 여격 대명사를 사용하면서도, 특이하게 자주 πρὸς를 사용한

58) 유진 피터슨, 『이 책을 먹으라』, 양혜원 역 (서울: IVP, 2006), 227-242.

59) 마 7:28; 8:26; 9:10; 11:1; 13:53; 19:1; 26:1; 막 1:9; 2:23; 4:4, 39; 9:7(2), 26; 눅 1:23, 41, 59, 65; 2:15, 46; 4:36; 5:12, 17; 6:49; 7:11; 8:1, 24; 9:18, 29, 33; 11:1; 13:19; 14:1; 17:11, 14; 19:15, 29; 20:1; 22:44; 24:4, 15, 30, 51.

다.⁶⁰⁾ 예를 들어, 예수가 말할 때 누가복음서 9:3, 13에서는 εἶπεν πρὸς αὐτούς,⁶¹⁾ 20절에서는 εἶπεν δὲ αὐτοῖς로 적혀 있다. 이것은 고전 그리스 문학에서 강조하기 위해서거나 시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문학적 장치였다. 그러나, εἶπεν πρὸς αὐτούς 같은 경우, 칠십인역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서, 터너(Nigel Turner)는 이것을 누가의 칠십인역 의존성향(Septuagintism)을 드러내는 문체라고 결론 내린다.⁶²⁾ 이것을 번역한 각 한글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εἶπεν πρὸς 관련 번역본들

9장	NTG ²⁸	『개역개정』	『새번역』	『성경』 ⁶³⁾
3절	εἶπεν πρὸς αὐτούς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이르셨다
13절	εἶπεν δὲ πρὸς αὐτούς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 하시니
20절	εἶπεν δὲ αὐτοῖς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 하시자,

위의 표에서 잘 드러나듯이, 모든 번역본들이 πρὸς뿐 아니라 αὐτούς나, αὐτοῖς를 옮기는 데서도 오류가 있을 뿐 아니라,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다. πρὸς가 있는 문구와 없는 문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표 2> εἶπεν πρὸς 관련 제안본

9장	NTG ²⁸	이천 년 전 본
3절	εἶπεν πρὸς αὐτούς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13절	εἶπεν δὲ πρὸς αὐτούς	그러자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20절	εἶπεν δὲ αὐτοῖς	그러자 그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60) A. Plummer, *Gospel According to St. Luke*, lxii; Henry J. Cadbury, *The Making of Luke-Acts*, 215.

61) 62절에서는 εἶπεν δὲ [πρὸς αὐτὸν]이라고 되어있다.

62) Nigel Turner, *A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Edinburgh: T. & T. Clark, 1976), 54; J.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116.

63) 가톨릭에서 2005년에 발간한 『성경』을 칭하는 것이다.

누가복음서 11:28에는 αὐτὸς δὲ εἶπεν이 나오는데, 이 문구를 “그러자 그분이 친히 말했습니다”로 번역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기존의 한글본이 잘 살리지 못했던 αὐτός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고, 대화 상대자가 없는 동사도 차별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또, 네 복음서에서 ‘이웃’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어 단어로 πλησίον, γείτων, περίοικος 등이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πλησίον이다(10:27, 29, 36; 참조, 마 5:43; 19:19; 22:39; 막 12:31; 12:33; 요 4:5). 그런데 περίοικος는 신약 일회 용어(hapax legomenon, 눅 1:58)이며, γείτων 같은 경우, 누가복음에 세 번(14:12; 15:6, 9), 요한복음서에는 단 한 번(9:8) 쓰인 희귀 용어이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한글번역본들에는 다 ‘이웃’이라는 동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 의미의 전달면에는 문제가 없으나, 한글에서도 ‘이웃’의 유의어가 옆집, 앞뒷집, 인근, 근처 등 다양하게 있고, 누가가 굳이 잘 쓰지 않는 περίοικος, γείτων을 사용한 데에는 문장의 수준이나 표현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또, 한글이 그러한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만큼 단어들이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14:12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번역하여 γείτων의 묘미를 문맥에 맞게 살릴 수 있다고 본다.

<표 3> 누가복음서 14:12의 γείτων 번역본들

『개역개정』	『새번역』	『성경』	이천 년 전 본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네 형제나 네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리곤 그분을 초대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을 할 때, 부르지 마세요, 당신 친구들을요. 당신의 형제들도요. 당신의 친척들도, 앞뒷집 부자들도요. ”

본고는 누가가 마가복음서와 소위 Q자료를 첨가시켰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첨가시킨 특수 자료나 자신이 덧붙인 언어

들, 특유의 화법을 조금은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문학작품으로서 누가의 문학성을 찾아 잘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중적인 언어로 사람을 강렬하게 감화시키는 설화능력을 도외시할 것도 아니다.

3.2.4. 동사의 미완료 시제의 의미를 최대한 살린다.

그리스어에는 동사에 동작의 시간(tense)뿐 아니라, 시상(aspect)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일반 언어나 그리스어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전통적으로 문법학자들은 시간 측면에서 동사의 시상을 이해했다. 그러나 포터(Stanley E. Porter)와 패닝(B. M. Fanning)은 동사의 시상(aspect)을 부정과거(aorist), 현재(present), 완료(perfect)로 나눌 때, 이 동사들의 구분이 전통적인 문법 해석 틀인 시간적인 측면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⁴⁾ 두 학자가 비슷한 시기에 동사의 시상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해, 이후 동사 시상에 대해 동사의 활동 지속성, 희구성 등 보다 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그런데 포터와 패닝 중 포터는 동사의 어의를 시제 관점에서 화자나 저자가 동사를 사용할 때의 관점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⁵⁾ 시상동사 시제형은 절대시제로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동사를 해석할 때, 화자가 그 동사를 사용할 때의 실제적 상황이나, 동사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동사 의미에 대해 주관성을 더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가 동일 서신에서, ἀμαρτάνω를 부정과거형인 ἥμαρτον으로 똑같이 썼다 할지라도(롬 2:12; 3:23), 그 동사가 사용된 문맥에 따라 완료시상을 영원히 가지는 의미로(롬 2:12), 또는 모든 시간에 다 일어나는 완료시상으로(롬 3:23)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⁶⁾

64) Stanley E. Porter, *Verbal Aspect in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1 (New York: Peter Lang, 1989);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the New Testament Greek*, Oxford Theological Monographs (Oxford: Clarendon Press, 1990).

65) 동사 시상에 대한 근본적 관점에 있어서, 포터(Stanley E. Porter)는 패닝(B. M. Fanning)과 일치한다. 그러나 패닝이 동사의 동작(Actionsart)과 시상(aspect)을 구분하지 않고, 융합하려 한 점은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포터는 비판한다. 동사에 대한 해석에서 시간 개념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미래 시제에 있어서도, 패닝은 동사의 활동성에 대한 객관적인 성격을 중시하며, 활동시간상의 미래적 개념이 있다고 보나, 포터는 일단 미래 시제의 시간적 초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Stanley E. Porter, *Studi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New York: Peter Lang, 1996), 28-33.

66) Ibid., 35. 대표적으로 『개역개정』을 봤을 때, 그의 번역 제안이 잘 반영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롬 2: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이들로 인해, 동사를 해석할 때, 시제보다는 훨씬 더 활동(action)과 문맥 안에서 화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고려하게 되었다. 물론 동사의 상(aspect, actionsart)에 대한 이론은 여전히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⁶⁷⁾ 전통적인 해석 틀을 많이 벗어난 것은 사실이다.⁶⁸⁾ 포터의 경우, 현재 시제 동사는 현재 활동만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될 뿐 아니라, 이야기에서 생동감을 주기 위해, 금언적인 의미(omnitemporal present)로,⁶⁹⁾ 불변의 활동(timeless action) 등을 말할 때 쓴다고 하였다.⁷⁰⁾ 한편, 미완료 시제 동사는 현재 시제 동사보다 활동의 측면을 덜 강조하는 대신, 미완료 상태, 또는 여러 번 일어난 측면을 더 강조한다고 본다.⁷¹⁾

문제는 부정(단순)과거이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과거에 완료된, 또는 진행이 구분되지 않는 활동이다. 그러나 현재시제로 쓰였던 금언적인 동사(gnomic aorist)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다.⁷²⁾ 또 영원한 행동을 가리키기 위해서도 쓰인다. 누가복음서 7:35의 ἐδικαιώθη 같은 경우, ‘지혜가 옳다 함을 얻느니라’로 현재형으로 번역이 된다는 것이다.⁷³⁾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한글 번역본에서 간과된 점이 미완료부분이다. 미완료는 과거부터 계속되었거나, 반복된 동작, 혹은 활동이 완료되지 못한 것을 강조할 때 쓰인다.⁷⁴⁾ 부정과거는 과거에 동작이 단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7) Robert I. Binnick, *Time and the Verb: A Guide to the Tense and Aspe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viii. 여기에 대해 에반스는 동사의 상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에 관해, 새로운 접근이 시도된 것은 겨우 150여 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T. V. Evans, *Verbal Syntax in the Greek Pentateuch: Natural Greek Usage and Hebrew Interferenc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4.

68) 대표적으로 포터의 문법틀을 받아들인 자들이다. Hardy Hansen and Gerald M. Quinn, *Greek: An Intensive Course*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80); 윌리엄 D. 마운스, 『마운스 헬라어 문법』; Constantine R. Campbell, *Verbal Aspect and Non-Indicative Verbs: Further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Peter Lang, 2008).

69) 예를 들어, 마 6:26; 7:17-18; 막 2:22 등. Stanley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32.

70) 예를 들어, 마 5:14-15; 고후 9:7. Ibid., 33.

71) 예로, 막 3:20-21에는 현재, 미완료, 부정과거가 다 나오는데, 내용은 과거 사건을 이야기하나, 현재 동사를(ἔρχεται, συνέρχεται) 사용하여 장면을 끌어와 상황을 설정하고, 부정과거는(ἔξηλθον) 이야기를 끌어가고, 미완료는(ἔλεγον) 예수 제자들의 생각을 기록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Ibid., 34.

72) 롬 3:23; 엡 5:29; 약 1:11; 벧전 1:24-25.

73) Stanley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39.

하게 발생한 것을 위해 쓰인다. 즉, 미완료 같은 경우, 과거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속된 활동이나, 일이 진행중이어서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법에는 둘 사이의 차이를 드러낼 만한 적당한 표현이 없다. 그래서 보통 『헬라어 교본』에서 미완료는 ‘-풀고 있었다’로 번역하고, 단순과거는 ‘-풀었다’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⁷⁵⁾ 그러나 사실 이 표현은 한글 표준어법으로도 맞지 않다. 그리고 구분도 되지 않는다. 실제 번역판에서도 이 의미가 살려진 적이 없다.

박형대 같은 경우 기존의 한글번역본과 다르게 그리스어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서 해석했을 뿐 아니라, 되도록 직설법 번역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미완료과거 시제 같은 경우,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장치로 받아들여, ‘-한다’로 옮긴다.⁷⁶⁾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행전 3:1에서, ‘Πέτρος δὲ καὶ Ἰωάννης ἀνέβαινον’을 ‘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라고 현재 시제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 벌어진 일들에 대해 5절까지 계속 ‘-합니다’라는 서술식 어투를 사용하다, 돌연 6절에서 ‘εἶπεν δὲ Πέτρος·’라고 단순과거 시제가 나오자,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로 번역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거나, 구걸하는 이가 성전 문 앞에 놔두어지는 일들은 자주 반복된 일이었다. 미완료 시제 동사들을 서술식 현재형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야기의 생동감을 더 없애는 것이다. 오히려 포터의 제안대로, 미완료 시제는 반복적이거나, 미완적인 의미를 살려서 옮기는 것이 옳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9:16에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실 때 떡과 물고기를 ‘주었다’는 말을 할 때, ‘ἔδιδου’는 δίδωμι 동사의 미완료시제로서 예수가 한 번 준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번에 걸쳐 주신 것을 의미한다.⁷⁷⁾ 누가는 예수가 이것들을 축복하고, 뿔 때는 단순과거 동사를 썼지만, 이 ‘주었다’는 말만 미완료 동사를 쓴 것이다. 이것은 계속 음식이 기적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지시할 수도 있다.⁷⁸⁾ 그러나 예수가 ‘계속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말을 들을 때, 비록 이 사건이 과거

74) Stanley E. Porter, *Studi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34-35.

75) 박창환, 『신약성서 헬라어 교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73-92. 마운스는 후반부에 주해 원리에서 ‘반복해서’ 문구를 첨가할 수 있다고 제안만 한다. 윌리엄 D. 마운스, 『마운스 헬라어 문법』, 298-315.

76) 박형대, 『사도행전 원문강독』, 14-15.

77) 마가가 δίδωμι 동사를 미완료 시제로 적었다(막 6:41). 그러나 마태는 단순과거로 바꾼다(마 14:19).

78) 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768.

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도 계속 떡거리를 공급해주시는 분이심을 각인시킨다. 더군다나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음식들을 나눌 때 예수가 하는 행동 묘사는 성만찬 사건을 연상시킨다.⁷⁹⁾ 누가가 이 동사를 미완료 시제로 남겨 놓은 것은 ‘계속 주는’ 예수의 모습에서 현재를 위로받고 싶어 하는 청중을 고려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표에서 보듯, 모든 한글판들은 전혀 그 동사의 미묘한 차이가 주는 효과를 드러내지 않는다.

<표 4> 누가복음서 9:16의 ‘ἐδίδου’ 번역본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성경』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주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이 διδωμι 동사의 미완료 시제를 살릴 수 있는 번역으로 대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살린다면, 16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빵 다섯 개를 가지고, 물고기 두 마리도요. 하늘을 쳐다보신 뒤, 그것들한테 복 내리셨습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군중 앞에 놓도록요.” 이처럼 다른 경우에도 타 번역본들은 미완료시제를 부정과거 시제로 바꿔 단순하게 처리해놓은 상태이다.⁸⁰⁾

79) François Bovon, *Luke 1*,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357.

80) 예를 들어, 9:23 Ἐλεγεν δὲ πρὸς πάντας:

『개역개정』 -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새번역』 -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공동개정』 -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 -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전혀 미완료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천 년 전』 - 그리고 나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모두를 향해서요.

지금까지 대표적인 경우를 들어 제안본을 제시하였다. 포터는 부정과거 동사를 시제관점에만 너무 집중해서, 행동의 측면을 화자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부정과거 동사의 다양한 양상을 열었다. 다행히 기존 한글본들은 이런 제안들을 많이 수용하여 뜻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완료 시제에 있어서만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외에도 누가복음서만이 가지는 여러 특이점들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칙들을 최대한 지켜서 이천 년 전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방식대로 본문을 재현해본다면, 현재 우리가 읽는 것과는 다른, 그들이 감동받았던 느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천 년 전부터 거의 16세기에 이르기까지 대다수는 본고가 제시한 문장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말과 글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였던 누가의 입담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면, 데오빌로가 받았을 복음의 은혜를 지금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4. 누가복음서 본문 듣기: 9장

1 소집하셨습니다, 열두 명을요. 그들한테 주셨는데, 능력과 권세였습니다. 모든 귀신들을 누르고, 병들을 치료하는 거였습니다.

2 그리곤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말입니다.

3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여행에. 지팡이도 말고, 자루도 말고, 빵도 말고, 은화도 말고, 옷도 두 벌 가지지 마세요.

4 그리고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세요.

5 누구든지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으면, 떠나세요, 그 고을로부터요. 먼지를 여러분 발에서 털어버리세요. 그들과 맞선다는 증거로 말입니다.”

6 그래서 그들은 떠나, 두루 다녔습니다, 마을들을요. 복음을 전하며, 치료하였습니다, 모든 곳에서요.

7 그러자 들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요.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으켜졌다 하고,

8 몇몇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예언자가 옛

날 사람들 중에서 일어났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9 그래서 헤롯은 말했습니다. “요한은 바로 내가 목을 베었는데? 누구지?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 이런 것들을 듣지?”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를 보려고 말입니다.

10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이요. 그분한테 다 털어놓았습니다, 자기들이 한 모든 일들을요. 그러자 그들을 데리고, 따로 후퇴해, 고을로 가셨는데 벧새다라 불렸습니다.

11 그런데 군중들이 알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영접하시며, 그들한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을 계속 고쳐주셨습니다.

12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명이 다가가 그분한테 말했습니다. “군중을 보내십시오. 가서, 주변 마을들하고 촌에서, 잠자리도 구하고, 식량도 찾게요. 여기 이 외딴 곳에, 저희가 있습니다.”

13 그러자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한테 주세요, 여러분이, 먹는 걸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더 없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말고는요. 우리가 가지 않는 한 말입니다, 사려요. 이 모든 백성을 위한 음식들을요.”

14 왜냐면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략 남자만 오천 명이었습니다. 그러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요. “그들을 비스듬히 앉게 하세요, 무리로, [대략] 오십 명씩 말입니다.”

15 그래서 그렇게 해, 비스듬히 모두 앉게 했습니다.

16 빵 다섯 개를 가지고, 물고기 두 마리도요. 하늘을 쳐다보신 뒤, 그것들한테 복 내리셨습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군중 앞에 놓도록요.

17 먹고, 다 배불렀습니다. 남은 것이 거뒀는데 그들한테요, 부스러기들로 열두 광주리였습니다.

18 그리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시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혼자였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들한테 물으셨습니다. 말하시길, “나를 뭐라고 말하나요, 군중들이?”

19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세레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예언자가 옛날 사람들 중에서 일어났다고 그러합니다.”

20 그러자 그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요.”

21 그러자 그분은 꾸짖으면서, 그들한테 명령하셨습니다. 아무한테도 이걸 말하지 말라고요.

22 말하시길, 무조건 인자는 많이 고난 겪어야 하고, 배척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로들한테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째 일으켜져야 한다고요.

23 그리고 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를 향해서요. “만일 누가 원하길, 제 뒤를 따라 오는 거라면, 자길 부인하고, 지세요, 자기 십자가를요 매일. 그리고 저를 좇으세요.”

24 왜냐면 누구든지 원하길, 자기 목숨을 구하는 거라면, 그걸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생죽음하면, 자기 목숨을, 저를 위해서요, 바로 이 사람은 그걸 구할 겁니다.

25 왜냐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획득해도 말입니다, 온 세상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생죽음하거나 빼앗기면 말입니다.

26 왜냐면 누구든지 부끄러워하면요, 저와 제 말들을요. 이런 사람을 인자는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올 때, 자기 영광으로, 또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말입니다.

27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정말로. “몇 명 있습니다. 여기 서있는자들 중에서요. 이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겁니다. 볼 때까지요, 하나님 나라를 말입니다.”

28 일이 있었습시다, 이 말들 뒤 대략 여드렛날에 베드로를 데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였습시다.

29 그런데 일이 있었습시다,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그분의 얼굴요, 변하고, 그분 옷이 하얗게 빛났습시다.

30 그리고 보세요! 두 남자가 함께 그분과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시다.

31 그들은 나타났습시다, 영광 속에서요. 말했습니다. 그분의 떠남을요. 그것은 그분이 이루시려는 일이었습시다. 예루살렘에서요.

32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있던 자들이 있었는데, 무거웠습시다, 졸려서요. 그러다 완전히 깨어서, 봤습시다. 그분의 영광을요. 그리고 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서 있는 걸요.

33 그리고 일이 있었습시다, 그들이 이별할 때, 그분한테서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요. “스승님. 이게 좋습니다. 우리가 여

기 있는 거요. 그리고 초막 세 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당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뭘 말하는지 모르면서 말입니다.

34 그가 이걸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생기더니,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겁먹었습니다, 자기들이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그 구름 속으로요.

35 그러자 소리가 나왔습니다, 구름에서요. 말하길, “이 사람은 내 아들, 전에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36 그 소리가 나온 뒤, 예수님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다, 그 당시는요. 자기들이 본 걸 말입니다.

37 그런데 일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내려왔는데, 산에서요.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군중이요.

38 그런데 보세요! 군중 속에서 남자가 외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당신한테 빚니다. 굶어봐주세요! 제 아들을요! 독자입니다, 저한테요.

39 보십시오! 영이 개를 붙잡고 있으니, 갑자기 고향을 지르고, 개를 발작하게 하고 거품 내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개한테서 떨어지지 않고, 개를 부러뜨립니다.

40 그래서 빌었습니다, 당신 제자들한테요. 그것을 내쫓아 달라고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41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 못 믿는 세대, 비뚤어졌고! 언제까지 내가 당신들과 같이 있으면서, 당신들을 참겠습니까? 이리로 데려 오십시오, 당신 아들을.”

42 그래서 개가 오고 있는데, 개를 내동댕이쳤습니다, 그 귀신이요, 그리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그 더러운 영한테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개를 돌려주었습니다, 개 아버지한테요.

43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위풍당당함에 대해서요. 모두 경탄했습니다. 그분이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그분이 자기 제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44 “여러분은 담야 두세요. 여러분 귀에 이 말들을요. 사람의 아들이 곧 넘겨질 겁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말입니다.”

45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먹질 못했습니다, 이 발언을요. 그게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게요, 그리고

그들은 묻기도 두려웠습니다. 그분한테 이 발언에 대해서요.

46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속에서도. 그건 누가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 중에서도.

47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논쟁을요, 그들 마음에 말입니다. 아이를 데려다가 개를 세웠습니다, 자기 옆에요.

48 그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이면요, 이 아이를 내 이름으로 말입니다. 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날 보낸 분을요. 왜냐하면 제일 작은 사람, 여러분 모두 중에 속한 자, 바로 이 사람이 큼니다.”

49 그런데 요한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당신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서, 우리가 그를 금했습니다. 그 사람이 좇지 않아서요, 우리와 같이 말입니다.”

50 그러자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은 금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을 위하는 자입니다.”

51 일이 있었습니다, 꼭 찻을 때, 그분이 승천하는 시기가요, 그래서 그분은 친히 얼굴을 고정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요.

52 그래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얼굴보다 먼저요. 그들은 가다가,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준비하려고 말입니다.

53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분을요. 왜냐하면 그분 얼굴이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요.

54 그러자 보고선, 그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길 원하시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들을 소멸해라고 말입니다.”

55 그러나 그분은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56 그리곤 가셨습니다. 다른 마을로요.

57 그들이 가는데, 길에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을 향해서요. “저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요.”

58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여우들은 굴들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들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없습니다. 머릴 둘 데요.”

59 그리곤 다른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허락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먼저 장사 지내게요. 제 아버지를 말입니다.”

60 그러자 그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의 장사

를 지내게 하세요. 당신은 가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61 그런데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당신을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먼저 절 허락해주시옵시오. 작별 인사 하도록요. 제 집 식구들한테요.”

62 그러자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아무도 놓지 않습니다, 손을 쟁기에요. 그리고 뒤로 보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요.”

<주제어>(Keywords)

낭독, 청중, 듣기, 누가, 입말.

reading, audience, hearing, Luke, spoken language.

(투고 일자: 2017년 7월 29일, 심사 일자: 2017년 9월 4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10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 『200주년 신약성서』, 왜관: 분도출판사, 1991.
- 『성경』, 왜관: 분도출판사, 2005.
- Ep. Ad Damasum* 20.4.4.
- 구교형, “연장자에게 반말한 예수?”,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2> (2017. 4. 5.).
- 국립국어원, “님”, 『표준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7. 4. 6.).
- 김구한, “이야기판의 형성과 이야기 연행의 특징”, 『민속연구』 24 (2012), 5-61.
- 김현정, “연행(Performance) 현장에 참여한 청중의 시각에서 본 마가복음의 그리스도상과 제자상”, 박사학위논문, 서울장신대학교, 2014.
- 마운스, 윌리엄 D., 『마운스 헬라어 문법』, 조명훈, 김명일, 이충재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7.
- 민영진, 『개역개정판 이렇게 달라졌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
-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성경원문연구』 34 (2014), 83-109.
- 박윤만, 『신약성경 언어의 의사소통 기술』, 서울: 그리심, 2013.
- 박창환, 『신약성서 헬라어 교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박형대, 『사도행전 원문강독: 원문, 번역』, 서울: 그리심, 2015.
- 성기철, 『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교육』, 서울: 글누림, 2007.
- 전무용, “성서 번역자가 알아야 할 한국어 문법: 체언과 용언의 표현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5 (2004), 59-81.
- 조광호, 『성서헬라어』, 서울: 소망사, 2005.
- 피터슨, 유진, 『이 책을 먹으라』, 양혜원 역, 서울: IVP, 2006.
- Achtemeier, P. J., “Omne verbum sonat: The New Testament and the Oral Environment of Late Western Antiquity”, *JBL* 109 (1990), 3-27.
- Alexander, Loveday, *The Preface to Luke’s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Alexander, Loveday, “What if Luke Had Never Met Theophilus?”, *Biblical Interpretation* 8:1-2 (2000), 161-170.
- Bauckham, Richard, *Jesus and the Eyewitnesses: The Gospels as Eyewitness Testimony*, Grand Rapids: W. B. Eerdmans, 2006.
- Binnick, Robert I., *Time and the Verb: A Guide to the Tense and Aspec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Blass, F. and Debrunner, A.,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Bovon, François, *Luke 1*,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 Cadbury, Henry J., *The Style and Literary Method of Luk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0.
- Cadbury, Henry J., “Four Features of Lucan Style”, Leander E. Keck and J. Louis Martyn, eds., *Studies in Luke-Act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87-102.
- Cadbury, Henry J., *The Making of Luke-Acts*, London: Hendrickson, 1999.
- Campbell, Constantine R., *Verbal Aspect and Non-Indicative Verbs: Further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Peter Lang, 2008.
- Caragounis, Chrys C., *The Development of Greek and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 Deissmann, G. A., *Bible Studies*, Peabody: Hendrickson, 1988.
- Dewey, Joanna, *The Oral Ethos of the Early Church: Speaking, Writing, and the Gospel of Mark*, Eugene: Cascade Books, 2013.
- Downing, Gerald, “Theophilus’s First Reading of Luke-Acts”, C. M. Tuckett, ed., *Luke’s Literary Achievement*, JSNTSS 11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91-100.
- Dundes, Alan, *Holy Writ as Oral Lit: The Bible as Folklore*, Lanham; Boulder; New York;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9.
- Dunn, James D. G., *The Oral Gospel Tradition*,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 2013.
- Evans, T. V., *Verbal Syntax in the Greek Pentateuch: Natural Greek Usage and Hebrew Interferenc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Fanning, B. M., *Verbal Aspect in the New Testament Greek*, Oxford Theological Monographs, Oxford: Clarendon Press, 1990.
- Fitzmyer, Joseph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AB 28, Garden City: Doubleday, 1981.
- Friesen, Steven J., “Poverty in Pauline Studies: Beyond the So-called New Consensus”, *JSNT* 26 (2004), 323-361.
- Gamble, Harry Y., “Literacy, Liturgy, and the Shaping of the New Testament Canon”, *The Earliest Gospels*, Charles Horton, ed., London; New York:

- T&T Clark International, 2004, 27-39.
- Green, Joel B.,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 1997.
- Hansen, Hardy and Quinn, Gerald M., *Greek: An Intensive Course*,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80.
- Harris, William V., *Ancient Lite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 Holzberg, Nicklas, *Die römische Liebeslegie: Eine Einführung*, 2nd ed.,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1.
- Kelber, Werner H., *The Oral and the Written Gospel: The Hermeneutics of Speaking and Writing in the Synoptic Tradition: Mark, Paul and Q*,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 Kenney, E. J., “Books and Readers in the Roman World”, E. J. Kenney,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lassical Literature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1-32.
- Kenyon, Frederic G., *Books and Readers in Ancient Greece and Rome*, Oxford: Clarendon Press, 1951.
- Knox, B. M. W., “Silent Reading in Antiquity”, *GRBS* 9 (1968), 421-435.
- Lee, Margaret E., “Sound and Structure in the Gospel of Matthew”, Kelly R. Iverson, ed., *From Text to Performance: Narrative and Performance Criticisms in Dialogue and Debate*, Eugene: Cascade Books, 2014, 97-130.
- Lee, Sang-II, *Jesus and Gospel Traditions in Bilingual Context: A Study in the Interdirectionality of Language*, Berlin; Boston: De Gruyter, 2012.
- Longenecker, Bruce W., *Remember the Poor: Paul, Poverty and the Greco-Roman World*,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 2010.
- Lord, Albert B., “The Gospels as Oral Traditional Literature”, William O. Walker, ed., *Relationships among the Gospel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San Antonio: Trinity University Press, 1978, 33-90.
- Marichal, R., *L'écriture et la psychologie des peuples*, XXIIe semaine de synthèse, Paris: A. Colin, 1963.
- Mathieson, Erica A., “The Language of the Gospels”, Mark Harding and Alanna Nobbs, eds., *The Content and the Setting of the Gospel Tradition*,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2010, 62-78.
- Metzger, Bruce M. and Ehrman, Bart D.,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4th ed.,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Morgenthaler, R., *Statistik des neutestamentlichen Wortschatzes*, Frankfurt am

- Main; Zürich: Gotthelf, 1958.
- Moulton, J. H., *A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4 vols., 3rd ed., Edinburgh: T. & T. Clark, 1908.
- Nolland, John, *Luke 1-9:20*, WBC 35A, Dallas: Word Books, 1989.
- Parker, Holt N., “Books and Reading Latin Poetry”, William A. Johnson and Holt N. Parker, eds., *Ancient Literacies: The Culture of Reading in Greece and Rom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86-232.
- Parsons, Mikeal C., *Luke: Storytellers, Interpreter, Evangelist*,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7.
- Plummer, A., *Gospel According to St. Luke*, ICC, Edinburgh: T. & T. Clark, 1922.
- Porter, Stanley E., *Verbal Aspect in the Greek New Testament*, Studies in Biblical Greek 1, New York: Peter Lang, 1989.
- Porter, Stanley E., *Studi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New York: Peter Lang, 1996.
- Porter, Stanley E.,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Turner, Nigel, *A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Edinburgh: T. & T. Clark, 1976.
- Wire, Antoinette Clark, *The Case for Mark Composed in Performance*,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Series 3, Eugene: Cascade Books, 2011.

<Abstract>

**Luke's Gospel Narrative
Which Had Been Heard Two Thousand Years Ago**

Hyunjeong Kim
(Seoul Jangsin University)

When the author of the Gospel of Luke wrote the narrative about Jesus' story, the majority of the common people could not read it because they were illiterate and could not afford to buy it. In those days, people usually got access to the literature by listening to someone who was literate. Luke also would have known well the main media of communication and the way of delivering his writing. Henry J. Cadbury pointed out four features of Lucan style, which are repetition, variation, distribution, and concentration. These are told to indicate influences of oral tradition.

In Korea there are many Bible versions, representatively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Common Translation Revised Version (1999), and Seonggyeong (2005). They all have a common purpose in their translation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at they aim at adjusting to the Korean way of writing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ancient Greeks. Especially in the Gospel of Luke, the predicate is often located in the early part of the sentence. On the contrary, Koreans place the verb in the latter part of the sentence. Translations in all Korean Bible versions are therefore quite dissimilar to the Greek Bible, the so-called NTG²⁸ chosen here when they are compared against the Greek one.

I thus set up several principles for translating the NTG²⁸ into Korean versions with the attempt to reconstruct the way early Christians comprehended when they heard the gospel of Luke two thousand years ago as follows: 1) The sentence is transcribed into the Korean version following the one breath rule while the reader is reading. In early Christian churches, a reader must have read out phrase by phrase, taking a breath before the audience because he could not keep on reading a sentence without breathing in and out. 2) The sentence is decoded

according to the order it has been written. I try not to follow the Korean way of writing. It turns out the gospel of Luke was composed by means of oral devices and excellent utterances from the mouths of Jesus and the narrator. 3) I pursue the dynamic equivalence between the source text and Korean audiences. Koreans have the custom of using honorific expressions to convey respect to a teacher or older people. When the narrator calls Jesus, Jesus is called by his name with the suffix *nim* added to signal respect. When Jesus speaks to anyone whether it is his disciples, the crowd, the Pharisees, or etc., he uses honorific speech or mediates their level using *hasipsiyo* or *haseyo* instead of the imperative *haera* which is used towards lower people. 4) I try to preserve the unique features of Lucan style, which contains a lot of languages and phrases known to be influenced by the Septuagint.

All Korean Bible versions rarely show a good command of literary Greek when choosing Korean words to transcribe various Greek words. Early Christians were evangelized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not by reading but simply by listening to the Scripture. I hope many Koreans can be led in the same way of hearing to experience every bit of the gospel of Luke.